

주민참여복지 네트워크에 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 방법론 -

김 영 숙⁺

(삼육대학교)

임 호 연

(세종사이버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환경에서 주민 자원조직 참여 네트워크의 내용과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주민 참여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하여 수행하였으며 총 연구참여자는 24명이었다. 자료는 심층면담과 문서기록 수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자료분석은 스트라우스와 코빈 (Strauss and Corbin)이 제시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에서는 총 133개의 개념과 32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 결과를 패러다임에 따라 정리했다. 인과적 조건은 욕구의 질적 상승, 복지소비자 주권 의식의 대두, 중심현상은 실천기반의 동요와 탈출구 모색, 맥락적 조건은 자원의 위기, 사회복지회이론, 중재적 조건은 사회복지의식의 성숙, 공동체 책임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전략은 자생적 조직의 사회복지 자원화, 복지 핫라인 구축, 현장 밀착형 서비스체계로 나타났다. 결과는 풀뿌리 복지, 전략형 맞춤형서비스 전달체계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사회복지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아래로 부터의 실천혁명으로 구성했다.

주제어: 지역복지, 주민참여, 네트워크, 근거이론

* 이 논문은 2007년 일본학술진흥회과학연구비조성금(기초연구A: 연구책임자: 白澤政和(Shirsawa Masakazu, 大阪市立大學校教授)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밝혀둔다.

+ 주저자

1. 서론

최근 사회복지학계는 물론 정치·행정학 등에서도 주민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주민참여복지는 “대안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서구의 신보수주의 영향으로 복지국가는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중앙정부는 축소된 재정으로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책임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 전가했다.

그러나 낮은 재정자립도와 취약한 자원동원 능력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지역사회복지관과 같은 자원부문(voluntary sector)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수요에 대응해 왔다(김준현, 2009; 정윤길, 2000; 이승중, 2000). 하지만 민·관 거버넌스 만으로는 점차 다양해지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역시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주원인은 민·관 거버넌스의 위계적 특성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우리 사회복지실천 현실은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공공부문이 독점하여 민간부문에 배분하는 상·하의 위계구조적 성격이 강했고, 특히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은 공공부문의 헤게모니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상·호 협력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라는 네트워크의 이상적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볼 수 있다. 대안을 모색하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실천 기관들은 지역사회내의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외연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민·민 네트워크는 자원과 정보의 공유와 교환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 참여조직 구성원의 무임승차, 이중업무로 인한 소진, 특히 이미 확보된 자원의 집행을 위한 형식적인 결합 등(김교정, 2009)의 부정적 현상도 관측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규범적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으로 평가 받아온 네트워크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측정수단의 부재, 다수행위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수단의 부재 등을 거론할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지역사회복지의 대상인 동시에 궁극적인 실천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의 중앙정부의 기능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떠맡은 책임과 기능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복지의 총량과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적 연대를 구현하는 장으로서 주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토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는 지역주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은 물론 임파워먼트강화,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증진,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Berner and Phillips, 2005).

사회복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법제화되고 지금까지의 하향식·전

문가중심 복지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책무성을 강조하는 지역주민 참여 복지로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강대선·류기형, 2007)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복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

사회복지학계의 연구동향을 보면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원론적 논의(강우진, 2008; 채현탁, 2007; 김경희, 2005)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험연구는 지역사회 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강대선·류기형, 2007)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주민참여복지에 대한 경험연구가 드문 이유는 「당연시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의 소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 참여는 전제조건이자 당연한 것임으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미루어 짐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로는 지표현상(index phenomenon)의 포착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즉 주민참여라는 추상적 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현상을 찾고 이를 통해 그 실상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민참여의 정도와 실상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현상을 찾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연구자들은 지역복지에 있어 핵심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민 거버넌스로 상정하고 지역사회복지관과 지역주민조직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는 기존의 관료제 복지로서 인한 경직성을 보완하고 네트워크 참여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각광을 받아왔다(Proyan and Milward, 2001 ; Rhode, 1999). 이와 같은 네트워크 접근의 유용성과 시의성은 국내 사회복지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초기의 연구동향이 네트워크 접근을 통한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김경혜, 1996; 조애저·이상용·배화옥, 1996; 정순돌, 1997)였다면 1997년 이후에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 모델 개발(김인숙·신은주·김혜선, 1997), 민간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홍경준·백종만, 1999), 네트워크 구축과 추진방안(이현주, 2000)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단순한 실태조사와 방향 설정에서 벗어나 조직특성과 연계의 내용 등 구조적인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물들은 네트워크 구성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정순돌, 2001),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구조(강창현, 2001; 유대균·김자옥, 2001; 이혜원, 2002), 네트워크 집단의 성격 및 연계활동에 대한 내용분석(박경숙, 2008; 이춘광, 2008; 김교정, 2009)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지역사회복지 영역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모두 사회복지복지관이나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뿐이고 주민조직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지역주민조직과 복지서비스제공 기관 간의 협력관계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연구자들은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특성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참여복지 네트워크 구성에 영향을 준 사회적 조건과 전개 과정과 내용, 그리고 주민참여복지네트워크의 활동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주제의 경우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관계된 선행연구를 찾기 힘들다. 선행연구가 부족한 경우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Merriam, 1988)고 사료되어 근거이론(grounded theory)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지역사회복지 환경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조직화 할 수 있는 실천전략 모색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1) 네트워크의 개념

사회과학 분야에서 네트워크 관점의 기원은 Durkheim, Simmel 등의 사회학자들이 개인과 조직 간의 연계구조와 조직이 어떻게 집단구성원들을 통합하느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사회복지학의 경우 네트워크는 복지국가의 축소에 따른 위기와 관료제의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1976년대 복지선진국들은 재정적 위기감이 고조되자 제도적·공식적으로 제공되던 사회서비스를 축소하고 사회자원 동원을 시도했고 또한 공식적 서비스 기관들이 관료제적 경직성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제대로 부응을 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네트워크 접근을 확대했다 (Connelly, 2006; Walker, Wasserman and Wellman, 1994).

위와 같은 연원을 지닌 네트워크 고전적 정의는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관계유형 (Nadel, 1957)이지만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린다. Alter와 Hage(1993)는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 목적에 기초한 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연계로 정리했고 연계, 그리고 통합의 3요소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현주(2000)는 네트워크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간의 협력으로 정의했다. 유태균과 김자옥(2001)은 다수의 기관들간에 형성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에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고 서비스를 의뢰 및 연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정의했다. 김교정(2009)은 개별화되고 통합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속성에 중점을 두어 네트워크를 다양한 조직 간의 연결체계라고 간략히 정의하기도 했다.

위와 같이 연구자들마다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정의했지만 이것들을 관통하는 공통성은 협력과 연계 그리고 효율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참여 네트워크를 “주민자원조직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이 각자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협력과 연계의 전략으로 지역주민의 총체적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적 합동행위의 양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와 같은 다수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공동의 선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주민참여네트워크 역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복지기관 간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절에서는 게임이론 관점에서 네트워크와 같은 다자간 관계에서 협력이 어려운 이유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게임이론관점에서 고찰한 네트워크 협력관계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으로는 협력동기이론, 자원의존이론, 공동생산이론이 거론된다. 협력동기이론은 복수의 개인이나 집단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잘 정돈된 관계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생성,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정책 같은 외적 동기, 소속조직의 발전을 위한 내적 동기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Nelson, 2001). 자원의존이론은 네트워크 구성목적과 동기가 자원보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Bardach, 1998). 즉, 둘 이상의 개인이나 조직이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원에 의존되어 있을 때 참여기관이나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해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동생산이론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원을 절약하고자 공공서비스의 집행주체가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과정에 지역주민을 직접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설명한다(O'Tool, 1997).

위의 이론적 접근들 중 협력동기 이론은 동기에만 치우쳐 네트워크의 지속과 유지 그리고 구성원이나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자원의존이론은 협력하고자 하는 이유와 동기 그리고 시도와 같은 행위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 행위의 지속과 결과 등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공동생산이론 역시 네트워크의 현실적 목표와 효율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제대로 통섭(統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론의 근거에는 협력에 대한 소박한(naive) 사회적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 즉 행위자가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을 다른 행위자들과 같이 하면 문제해결이 용이하다는 신념에 의지하고 있다(Agranoff, 2006). 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자간의 행위양식에서 현실적으로 협력은 용이하지 않다. 문제는 이 협력을 당연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협력을 생성하고 유지하여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의 역동성을 보아야만 할 것이다.

게임이론은 다수의 행위자와 조직이 상호작용과 교환과 같은 관계맺음을 기초로 각자의 이익과 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호의존적인 선택에 관한 설명들인데 게임이론에서는 복수의 행위자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다시 만날 기회가 희박하고 의사소통의 부재, 수행의무의 결여, 연대나 규범과 같은 가치를 서로 공유할 수 없다는 것 등의 이유를 들어 협력이 어렵다는 전제를 한다(Bogason, 2000). 또한 게임이론에서는 행위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외적 통제 장치가 없어 행위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Rasmusen, 1994; Ostrom, 1990). 하지만 게임이론은 협력곤란이나 불가능의 반대영역에 협력을 조장하거나 촉진하는 반복적 만남, 협상, 동기강화와 같은 기제가 있음을 중시하고 있다. 게임이론은 협력에 대한 소박한 신뢰에는 회의를 품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능조건을 중시하고 있어 네트워크의 관계적 측면과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은 게임이론이 주민참여 네트워크에 시사하는 바는 반복적인 만남으로 상호의명성을 최소

화하고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만 전략적 선행성이 증가하여 집합적 목적 달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역시 네트워크에서는 반복적인 만남과 의사소통을 지지하고 있다. Glaser, Laison, Scheinkman and Soutter 등(1999)은 반복행위가 거듭될수록 상호신뢰는 증가하고 다수 행위자간의 관계밀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계밀도는 행위자간의 정서적 유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조장하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Green and Haines, 2002).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국내연구 역시 과거에는 자원이나 정보의 교환 등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정순돌, 2001; 김재환, 2005), 네트워크구조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중심자 역할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유태균·김자옥, 2001; 강창현, 2001)에 대한 분석관점에서 관계밀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점이 이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이춘광(2008)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120개 기관의 관계밀도를 구획모델링(block modeling)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구획 내의 관계밀도가 타구획 내 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중심이 된 구획에서는 행정기관의 우월적 헤게모니가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외적 통제 장치가 없어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위계적 구조가 아니라 평면구조이고 또한 자율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행위자들의 의사결정과 행위양식을 규율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는 기대하기 힘들다(Khator and Brunson, 2001; O' Tool, 1997). 자연스러운 귀결로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기제보다는 협상과 동기강화, 공동의 문제해결을 통한 상호작용의 활성화 등이 거론된다.

협상(bargaining)은 통제기제를 대신하여 다수행위자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가장 고전적 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게임이론가인 Elster(1989)는 다수 행위자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게임에서 독립적 선택과 행위가 발생하는 비협력 게임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으로서 협상을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협상은 각각의 행위자들이 분파적 행동과 선택을 했을 경우 야기될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상호 거래를 한 후 상호보상을 약속함으로써 호혜성에 대한 믿음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협력적 게임은 유지된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강화는 자연스럽게 협력을 유도하는 기제이다(Mattessich, Murray and Monsey, 2001). 그들은 동기를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동기로 구분했다. 개인적 동기의 경우 개인이나 조직이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위신과 자원, 권위 등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경쟁력에 보탬이 될 때 강화된다. 조직적 동기는 개인이 속한 조직의 성장, 발전이 기대될 때 강화된다. 반면 사회적 동기는 가치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조직보다는 공공의 선을 우선시 할 때 강화된다. Nelson(2001)역시 네트워크 참여 동기를 조직 외적, 상호적으로 분류했는데 외적동기는 수직적인 하향식 협력구조에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특정조직에 네트워크를 주도할 임무를 부여하고 다른 조직들은 이를 수용함으로써 발생한다. 이에 비해 상호적 동기 또는 내적 동기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조

직들이 협력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특정조직이 네트워크를 주도하지 않고 참여조직들이 수평적 관계를 이룰 때 강화된다. 주민참여 네트워크는 사회적동기와 상호적 동기에 의해 협력구조가 생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임이론에서는 협력구조의 상황적 장애로 편승효과(band wagon-effect)를 주목한다. 네트워크와 같이 다수의 조직이나 개인이 참여하는 행위양식에 있어서, 협력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편익이 발생하는 편승효과 또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네트워크 참여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적 기여를 확인하기 힘들고 이득은 불확실한 반면 손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김교정(2009)은 네트워크 참여 조직과 리더의 무임승차는 네트워크 담당 인력에게 이중 업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로 인해 소진과 같은 부정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강제와 부가 편익이 있어야 한다(Olson, 1965)는 주장이 초기에는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재에는 구조와 과정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통해 균등한 부담을 실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Khator and Brunson, 2001; Ostrom, 1990).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는 3개 기관의 사회복지사 7명과 지역사회복지운동가 2명, 지역사회주민 17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은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 世評的 事例選擇)¹⁾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 연구자들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동가 1인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을 통해 주민참여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기관을 소개받고 동의를 얻어 연구현장에 접근했다. 연구자들은 개별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구안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종사자들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역사회복지 실천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둘째, 주민참여 네트워크 활동경험이 1년 이상일 것이었으며 양자를 모두 충족시키는 9명을 선정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주민의 경우 주민참여네트워크 활동경험이 2년 이상일 것, 넷째,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으로 정하였고,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17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기간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였다.

1) 세평적 사례선택이란 특정분야의 숙련가 또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자로 하여 연구참여자 선정을 의뢰받는 방법이다.

2) 자료수집

연구자료는 심층면담과 문서기록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상이한 관점과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은 각 기관별로 지역사회 기관 종사자와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각 2회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각 회기당 평균 소요시간은 약 90분이었다.

근거이론방법을 비롯한 질적연구의 자료수집 원칙은 충분성과 포화성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심층면접이 끝난 후에도 의문사항이 있거나 부족한 사항은 개별접촉을 통해 자료를 보충하였다.

문서기록은 각 네트워크 사업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자료집, 회보, 연구자료 등이었다. 이러한 자료는 연구자들의 이론적 민감성을 촉발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자료분석시 연구자들이 제안한 실체이론 반증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수집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and Corbin, 1990)이 제안한 분석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코딩(open coding)에서는 원자료를 분해하여 줄단위분석(line by line)으로 개념을 구성하였으며, 개념군에서 서로 관계가 있거나 유사한 개념들을 결집하여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개념과 하위범주를 포섭하는 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범주를 구성하였다. 둘째, 축코딩(axial coding)에서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안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범주를 중심으로 재배열하였다. 셋째,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서는 각 범주를 관통하는 핵심범주를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주제인 주민참여네트워크 발달과정과 역동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형분석을 수행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비교적 적은 3개의 사례를 집중분석하고자 했기에, 유형분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유형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4) 연구의 엄격성 확보

질적연구에 제기되는 비판들 중 하나가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다. 하지만, 질적연구는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지식은 맥락적, 성찰적, 상황의존적 지식이기 때문에 신뢰도라는 잣대(criteria)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질적연구든 양적연구든 연구의 신뢰성, 즉 연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신뢰성을 엄격성(rigor)이라고도 하는

데, 연구의 엄격성이란 연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연구자들은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자료분석에 있어 합의적 분석모델(consensual analysis model)을 채택하였다. 합의적 분석모델이란 연구자의 독단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 연구자가 분석대상과 현상에 대해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기반(bedrock)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를 통한 확인전략을 채택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료분석과 기술시 의문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술한 연구참여자들을 다시 접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셋째, 동료지지집단(peer group)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사회복지 연구자들 중 질적연구, 특히 근거이론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2인과 지역사회복지실천경험이 풍부한 실천가 1인으로 동료 지지집단을 구성하였다. 동료지지집단은 연구자들의 독단을 방지하고 연구의 방향에 귀중한 조언을 하였고 이들의 조언은 연구자들의 이론적 민감성과 이론적 통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사료된다.

5) 연구의 윤리적 문제

질적연구는 심층지식을 탐구하고자 하기에 이 과정에서 개인의 윤리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개인의 사적인 부분과 정서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었으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장치를 설정하고 연구에 임했다. 첫째,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 자발성을 존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소속기관장이나 주민들의 경우는 사회복지사나 기관을 통한 연구참여의 회유를 하지 않았고 연구취지 및 목적을 철저히 설명 후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만전을 기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지역에 대한 사항은 영문이니셜로 처리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

〈사회복지사〉

구분	성별	연령	종사기관	기관내 포지션
연구참가자 I-1	여	40세	D시민사회네트워크	팀장
연구참가자 I-2	남	34세	D시민사회네트워크	팀장
연구참가자 I-3	남	44세	D시민사회네트워크	사무국장
연구참가자 I-4	여	35세	C노인행복네트워크	과장

연구참가자 I-5	여	40세	C노인행복네트워크	사회복지사
연구참가자 I-6	여	42세	C노인행복네트워크	사회복지사
연구참가자 I-7	남	36세	K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연구참가자 I-8	남	33세	K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연구참가자 I-9	남	28세	K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지역사회주민〉

구분	성별	연령	종사기관
연구참가자 II-1	여	35	D시민사회네트워크
연구참가자 II-2	남	39	D시민사회네트워크
연구참가자 II-3	남	40	D시민사회네트워크
연구참가자 II-4	여	39	D시민사회네트워크
연구참가자 II-5	여	42	D시민사회네트워크
연구참가자 II-6	여	56	C노인행복네트워크
연구참가자 II-7	남	48	C노인행복네트워크
연구참가자 II-8	남	60	C노인행복네트워크
연구참가자 II-9	남	53	C노인행복네트워크
연구참가자 II-10	남	61	C노인행복네트워크
연구참가자 II-11	남	59	C노인행복네트워크
연구참가자 II-12	남	49	C노인행복네트워크
연구참가자 II-13	여	42	K종합사회복지관
연구참가자 II-14	여	45	K종합사회복지관
연구참가자 II-15	여	46	K종합사회복지관
연구참가자 II-16	여	41	K종합사회복지관
연구참가자 II-17	여	52	K종합사회복지관

2) 개방코딩

원자료를 분해한 결과 총 133개의 개념과 32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 코딩 결과는 표2에 정리했다. 133개의 개념군에서 각 하위범주와 관계되는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하위범주 : 높아진 눈높이

“지금은 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 보다는 또 다른 것을 찾는 경향이 많아요.” (개념: 절대빈곤에서 벗어남, 연구참여자 I-4)

“상대적 박탈감 같은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같이 못 살때는 괜찮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자꾸 남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니까 그러고, 이런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개념: 상대적 빈곤의 심화, 연구참여자 I-5)

● 하위범주 : 다양성

“동네에 가보면 할머니들이나 애 어른 할 것 없이 참 요구하는 것도 많고 복잡해요. 옛날 같으면 생각할수도 없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요.”(개념: 복합적 요구를 지닌 클라이언트, 연구참여자 II-7)

● 하위범주 : 권리의식

“클라이언트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를 정부나 사회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로 인식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개념: 시혜에서 권리로 인식의 이동, 연구참여자 I-1)

● 하위범주 : 국가책임주의

“우리가 이렇게 된게 우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돼요.(이하중략) 사회복지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개념: 서비스 수급자 증가원인을 정책 실패로 간주, 연구참여자 I-3)

● 하위범주 : 사회복지 재정 분권화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참 갑갑할때가 많은데...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사무소에 가도 안된다는 말 뿐이고.”(개념: 하향 평준화 위기, 연구참여자 II-9)

● 하위범주 : 재정삭감

“복지 예산은 늘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법에 규정된 예산은 늘어났지만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재량적 예산은 줄었지요. 헤드릴게 없다고 할까요.”(개념: 재량적 복지 예산의 감축, 연구참여자 I-7)

● 하위범주 : 사회복지 민영화

“노인요양보험인가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별 도움이 안돼요. 자기가 내야 되는 돈 때문에 그냥 있는 사람도 많아요.”(개념: 서비스 이용에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 추세, 연구참여자 II-6)

● 하위범주 : 복지무용론 확산

“솔직히 저도 여기 참여하기 전에는 사회복지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네에 어떤 사람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저런 사람도 국가에서 꼭 돈을 줘야 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변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변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앙앙대니까.”(개념: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라는 견해, 연구참여자 II-4)

● 하위범주 : 개인책임 귀인론

“저희 마을은 니것 내것 없이 합심해서 잘 살아왔는데 사회가 변하니까 인심도 야박해져서 옆집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까지...(이하중략)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분위기도 바뀌고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개념: 사회적 연대의식이 희박해짐. 연구참여자II-16)

● 하위범주 : 실천 관행에 대한 반성

“구식 기술 가지고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사회는 변하는데 우리들은 옛날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유행가 가사처럼 아 옛날이여를 할 수도 없고...(이하중략) 여건도 안되고 일에 치여 힘도 들지만 세미나도 쫓아다니면서 뭔가 새로운걸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에 열심히 배웠어요.” (개념: 새로운 실천기술의 도입. 연구참여자 I-3)

“사실 배우긴 배웠어도 환경이나 사회구조 같은건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눈앞에 현실만 봤는데 구조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를 바꿀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손놓고 있을수는 없으니까.” (개념: 구조적 측면의 중시. 연구참여자 I-5)

● 하위범주 : 위기의식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망한다는 생각을 했지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예산지원은 줄고 환경은 점차 안좋아지는데 손놓고 있다가는 진짜 망하는거죠. 망하는게 어디 회사뿐이겠어요. 대학도 망하는데가 있다는데.” (개념: 자멸할 수 있다는 불안. 연구참여자II-14)

“지역사회복지에 앞날을 생각하면 참 답답했는데요. 희망보다는 우울하고 안좋은 예감만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나. 그냥 월급만 축내는 밥충이들은 아닌가.” (개념: 불투명한 미래. 연구참여자 I-4)

● 하위범주 : 자구노력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진짜 발에 불이 나도록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집식구들은 아버지가 이상해졌다고도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선을 찾아서 연결하니까 처음에는 어설했는데 이제는 요령도 생기고...” (개념: 자원개발에 주력. 연구참여자II-10)

“지역사회에는 잠재자원이 많은데 여태까지는 자원이 우리한테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을거예요.(이하중략) 자원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되긴 되더라고요.” (개념: 자원개발에 주력. 연구참여자 I-1)

● 하위범주 : 사회적 연대의 가치 발견

“주민들에게 자꾸 하는 말이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 그리고 우리도 남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기도 하는 게 인생인데요.(이하중략) 기초생활보장자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장애인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이하중략) 서로 돕자는 거지요.” (개념: 자신도 사회복지 서비스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연구참여자II-1)

- 하위범주 :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관에 와서 교육을 받기도 했구요.(이하중략) 그러다보니까 인식도 바뀌고 사명감 같은것도 생겨났다고 할까요. 아 복지관이 가난한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은 사람교육도 하는구나... 요즘 평생교육이 대세라고 하는데 복지관도 평생교육에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개념: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관. 연구참여자II-2)

- 하위범주 : 지역자조운동

“그 전에 청년 때 4H 운동도 하고 새마을 운동도 했어요. 세월이 바뀌니까 말들도 많지만 저는 순수했다고 자부해요.(이하중략) 거기서 배운게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 문제는 우리 주민이 해결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개념: 내 지역은 내 책임이라는 인식. 연구참여자II-15)

- 하위범주 : 사회적 재구성의 장

“우리같이 전통있는 마을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고 해야돼요. 싸우기도 하지만 단결도 잘하고 어려운 사람은 외면하지 못해요. 서로 잘 아니까요.(이하중략) 동네에서만큼은 인심을 알지 않아야 하니까 서로 의지하는 거죠.” (개념: 공동체 의식의 체득. 연구참여자II-17)

- 하위범주 :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네트워크 활동을 하다보니까 좋은점이 많은데 서로 대등해졌다고 할까요. 같이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힘도 나고 그래요. 저희들도 사회복지사가 된 기분이예요.” (개념: 복지기관과 지역은 동반자라는 인식. 연구참여자II-11)

- 하위범주 : 지역자원의 사회복지 조직화

“저희들 네트워크 활동에는 이장님들이 안계시면 안돼요. 이장님들만큼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없어요.(이하중략) 축구에서 보면 미들필더라고나 할 수 있어요. 전달체계에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개념: 이장단을 전달체계 축으로 활용. 연구참여자I-7)

- 하위범주 : 네트워크의 외연확대

“자꾸 만나야 되는데 양쪽 다 시간사정은 좋지 않으니깐 정기적인 모임을 하기는 어려워도 최대한 자꾸 만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친밀감도 생기고 복지관이 아주 편하게 느껴져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복지관 같은데는 거리감이 있잖아요.” (개념: 네트워크간의 접근성 향상. 연구참여자II-9)

- 하위범주 : 사례관리체계 개선

“지역주민들과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생긴 큰 변화는 사례발굴이 쉽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역사정에 어두운데 주민들이 사례를 찾아가지고 오세요.” (개념: 지역주민에 의한 사례발굴. 연구참여자I-2)

- 하위범주 : 유기적 전달체계

“뭉니뭉니해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에 큰 힘이 되지요. 사례가 발굴되면 저희는 저희대로 또

주민조직은 그분들대로 서로 뛰니까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불가능했던 일도 가능해지죠. 그런 변화가 많아요.” (개념: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함. 연구참여자 I-6)

● 하위범주 : 정보수집체계

“정보가 중요하지만 쓸데 없기도 하고 의미없는 정보도 많은데 네트워크에 참여한 주민들이 가지고 오시는 정보는 진짜 따끈따끈해요. 생생하니까 문제 해결 방법도 쉽게 찾아지는 경향이 많아요.” (개념: 체감 정보수집이 가능해짐. 연구참여자 I-7)

● 하위범주 : 현장중심실천

“가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허공에 대고 대포를 쏘는게 아닌가? 상황파악이 잘 안되니까요.(이하중략) 주민분들하고 같이 하면 상황이나 맥락같은게 비교적 정확히 파악되니까 실제적인 서비스가 많이 가능해졌다고 생각돼요.” (개념: 상황과 맥락을 파악한 실천접근. 연구참여자 I-4)

● 하위범주 : 찾아가는 서비스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오기전에 먼저 가니까 예방적 차원도 있지만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조기에 수습하면 일이 악화되지는 않잖아요. 접근성, 접근성 하는데 뭐 별게 있겠어요. 먼저 찾아가면 접근성 문제는 해결된다고 봐요. 같이 공동으로 하니깐 더 쉽죠.” (개념: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연구참여자 II-15)

● 하위범주 : 동역자 관계

“그전에는 조금 그런게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친근하기도 하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해요. 조수나 보조 역할이 아니라 동등하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개념 : 상하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이동. 연구참여자 II-16)

● 하위범주 : 실천가치의 공유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사회복지사님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아요. 실제로 하는 일은 없지만서도 같이 하니깐 같은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무얼하느냐가 중요한거죠.” (개념: 사회적 신망의 공유. 연구참여자 II-3)

● 하위범주 : 사회복지 당위성 획득

“주민분들하고 함께 일하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책임의식이 지역에 생겨요. 사회복지자는 정부하고 사회복지사만 하는게 아니구나 하는 어떤 의식같은거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거지요.” (개념: 긍정적 인식의 파급. 연구참여자 I-2)

● 하위범주 : 아래로부터의 개혁

“저희 단지는 임대아파트이고 하니깐 괜히 주민들은 주눅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수있을까? 그런건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협력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요.” (개념: 팽배한 패배의식의 극복. 연구참여자 II-13)

• 하위범주 : 사회복지 저변의 확대

“활동을 하다보면 할수록 우리 사는 동네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저뿐만 아니라 전염되는거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애착이 생기니까 힘도 각오도 매일 생긴다고 해도 괜 찮아요.” (개념: 지역애착의 고조, 연구참여자II-9)

• 하위범주 : 서비스의 선택과 집중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욕구는 다 해결해드리지는 못해도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도, 주관적인 만족 도는 높아졌다고는 확신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들과 주민이 열의를 다하는 것을 보니까 서비스의 종 류보다 정성이 담긴 질을 더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개념 :당사자의 만족도 증가, 연구참여자 I-3)

• 하위범주 : 상향 평준화

“네트워크 활동 전에는 같은 구라도 지역에 따라 격차가 많았는데 그 격차를 자원조직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을 하니가 격차가 조금씩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개념: 지역간 격차가 점차 해소됨)

• 하위범주 : 체감복지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서비스 문턱이 낮아졌다는 거지요. 서비스 하나 받으려해도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편하고 쉽게 서비스를 받으시니까.” (개념: 서비스의 친숙성 강화, 연구참여자 I-6)

<표 2> 개념과 하위범주, 범주 구성 목록

개념	하위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대빈곤에서 벗어남 ·평균소득상승에 따른 욕구의 상승 ·상대적 빈곤의심화 ·인간의 보편적 심리인 상승욕구 	높아진 눈높이	욕구의 질적 상승	인과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적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 ·확장일로에 있는 욕구 스펙트럼 ·서비스 수급 선택지의 증가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적 권리에서 구체적 권리로 바뀐 복지권리의식 ·시혜에서 권리로 인식의 이동 ·복지로 충만한 선거공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보편화 현상 ·정치적 자유권보다 우선시되는 경제적 자유권 	권리의식	복지소비자 주권의식의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의 궁극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인식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시장탈락자들의 정상화는 국가의 몫이라는 인식 ·서비스 수급자 증가원인을 정책실패로 간주 	국가책임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지자체의 예산축소 분위기 ·하향평준화 위기 	사회복지재정 분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량적 복지예산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성 복지 정책의 증가 ·미시분야에 대한 지원감소 	재정삭감	자원의 위기	맥락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차 시장원리에 경도되는 복지서비스 ·서비스 이용에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추세 ·수익추구 복지서비스업의 증가 ·서비스 공급기관의 경쟁력 쇠퇴 	사회복지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들의 反복지의식 ·사회복지를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분위기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비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견해 ·성장주의에 가려진 복지 ·복지에 회의적인 시각의 팽배 	복지무용론 확산	사회복지회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패를 개인 탓으로 돌림 ·사회적 연대의식이 희박해짐 	개인책임 귀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넓은 시각 ·복지부동했다는 반성 ·미시적 접근에만 경도되었다는 자각 ·구조적 측면의 증시 ·총체적 접근 실천 ·새로운 실천기술의 도입 	실천관행에 대한 반성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멸할 수 있다는 불안 ·불투명한 미래 ·팽배해지는 비판적 분위기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기관존립의 당위성이 위협당함 	위기의식	실천기반의 동요와 탈출구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개발에 주력 ·효율성과 효과성을 배가할 수 있는 방안모색 ·지역사회로 파고들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지역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자구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불안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인식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인식 ·희생자가 아닌 요보호자라는 인식 ·사회복지는 사회통합의 중심점이라는 인식 ·자신도 사회복지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사회적 연대의 가치발견	사회복지의식의 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교육이 활성화 됨 ·사회복지를 새로운 경쟁력으로 인식 ·학교에서의 사회복지교육 활성화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기관 	사회복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과 지역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 ·자기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함 ·내 지역은 내 책임이라는 구호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함 ·떠나는 곳이 아닌 정든 곳으로 	지역자조 운동	공동체 책임주의의 확산	중재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은 새로운 힘을 얻는 곳 ·경쟁탈락자들의 보호막 ·또 다른 사회교육의 현장 	사회적 재구성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의식의 체득 ·복지시설 혐오의 희석 ·복지기관과 지역은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 ·사회복지 자원이 되기를 희망함 	지역이기주의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에 대한 작성 ·이장단을 전달체계 축으로 활용 ·지역사회운동가들의 참여 ·지역유관인사들의 자원화 ·부녀회원들을 참여시킴 	지역자원의 사회복지 조직화	자생적조직의 사회복지자원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의 수를 늘림 ·네트워크간의 접근성 향상 ·자원가동력 증대 ·유관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의 외연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에 의한 사례발굴 ·준사례관리자를 활용한 접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접근 	사례관리체계 개선	복지하라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사각 지대를 해소함 ·비공식 자원 활용을 극대화함 ·논스톱 전달체계의 추구 ·긴급서비스 체계의 개선 	유기적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조직을 활용한 정보수집 ·개별적 정보수집이 용이함 ·체감정보수집이 가능해짐 	정보수집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성을 살림 ·상황과 맥락을 파악한 실천접근 ·클라이언트가 중심에 있는 실천 ·실제적 삶의 질 제고 	현장중심실천	현장밀착형 서비스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과 연계한 사례발굴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복지여론수렴창구를 개설 	찾아가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의 사업 기획과 수행 ·상하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이동 ·자발성과 능동성의 고취 ·공동책임분담 	동역자 관계	주민참여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신망의 공유 ·기관독점주의의 탈피 ·협력의 시너지 효과 	실천가치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간 호혜성 증가 ·필요악에서 필요선으로의 인식 전환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 획득 ·공정적 인식의 과급 ·수급자에서 자원공급자로의 이동 ·지역사회에서 공식적 권위 획득 	사회복지 당위성 획득	풀뿌리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복지의 단초를 엮 ·지역사회특성을 수렴한 접근 ·사회복지의 긍정적 여론 창도 ·당사자운동의 확산조짐 	아래로부터의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원의 결집 ·팽배한 패배의식의 극복 ·지역사회공동의 관심사로 부상한 복지 ·주민복지역량의 증가 ·지역사회 복지기금의 조성 ·주민개인이 복지주체라는 인식의 확산 ·복지자원의 편재성 ·지역애착의 고조 	사회복지 저변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재적소의 원칙이 확립되어감 ·자원의 효율성의 증가 ·당사자의 만족도 증가 	서비스의 선택과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 격차가 점차 해소됨 ·서비스 불만의 감소 ·서비스 연계성 향상 ·통합적서비스 	상향 평준화	전략적 맞춤 서비스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문제 개선에 기여 ·사회복지서비스가 가까이 있다는 인식의 확산 ·서비스의 친숙성 강화 ·구체적 개별적 서비스 제공 	체감복지		

3) 축코딩

원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개방코딩을 패러다임에 따라 정리한 결과 중심현상은 “실천기반의 동요와 탈출구 모색”으로 인과적 조건은 욕구의 “질적상승”, “복지소비자 주권의식의 대두”로 상정했다. 맥락적 조건은 “자원의 위기”, “사회복지회의론”으로 중재적 조건은 “사회복지의식의 성숙”, “공동체 책임주의의 확산”으로 각각 상정했다. 전략은 “자생적 조직의 사회복지 자원화”, “복지 핫라인 구축”, “현장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나타났다. 결과는 “풀뿌리 복지”, “전략형 맞춤 서비스 전달체계”로 상정했다. 범주도출 과정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료 분석시 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들의 다양하고도 높아진 욕구수준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

- 사회가 베푸는 하향식 시혜가 아니라 개인들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상향식 권리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구술이 많았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18개의 개념과 4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욕구의 질적상승”과 “복지소비자 주권의식의 대두”라는 범주로 구성했고 이를 현상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기제로 판단되어 인과적 조건으로 상정했다.

인과적 조건에서 나타난 사회복지 환경변화는 개방코딩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실천기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위기의식”, “자구노력”으로 이름붙인 하위범주들을 총 포섭하는 의미어로 “실천기반의 동요와 탈출구 모색”으로 상정했고 이를 중심현상에 위치시켰다.

위와 같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외부조건이나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맥락적 조건은 “자원의 위기”, “사회복지회의론”으로 상정했다. 원자료를 개방코딩하여 총 18개의 개념을 구성했는데 사회복지 재정분권화, 재정삭감, 사회복지 민영화의 하위 범주는 사회복지 자원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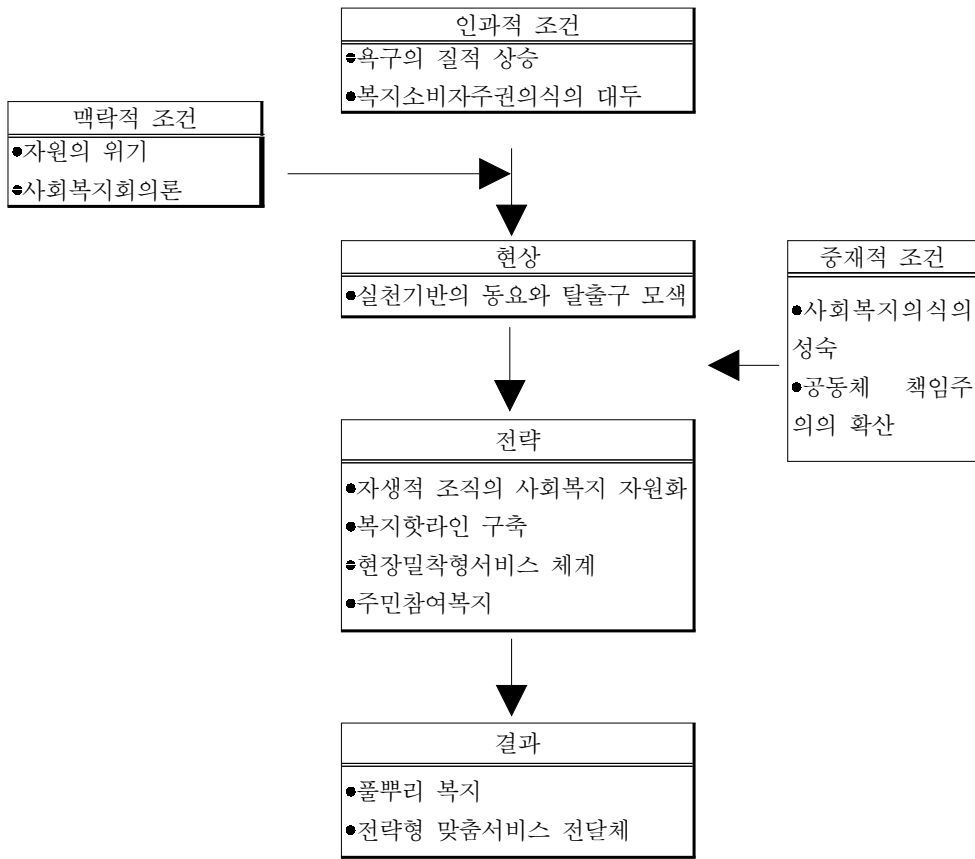
이라 판단하여 “자원의 위기”로 범주화했다. 또한 복지무용론 확산, 개인책임귀인론의 하위범주는 사회복지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그리고 부정적 시각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어 “사회복지회의론”이라는 상위 의미로 범주화했다.

중재적 조건은 “사회복지의식의 성숙”과 “공동체 책임주의의 확산”으로 상정했다. 이는 21개의 개념을 5개의 하위범주로 묶은 후 사회적 연대의 가치발견, 사회복지교육이라는 하위범주는 사회복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대척점에 위치한 또다른 긍정적인 인식이라고 사료되어 “사회복지 의식의 성숙”으로 범주화 했다. 지역자조운동, 사회적 재구성의 장, 지역이기주의 극복의 하위범주는 공동체 의식, 공동체에 대한 자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체 책임주의의 확산”으로 범주를 구성했다. 전략은 총 33개의 개념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이를 유사하거나 관계있는 것들로 묶어 9개의 하위범주를 구성했다. 이 중 지역자원의 사회복지 조직화, 네트워크의 외연확대라는 하위범주는 자생적인 동시에 사회복지자원의 증가라는 의미를 포착하여 “자생적 조직의 사회복지 자원화”라는 범주로 구성했다. 사례관리체계 개선, 유기적 전달체계, 정보수집체계의 하위범주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략적 이동으로 판단되어 “복지-핫라인 구축”으로 범주화 했다. 현장중심실천, 찾아가는 서비스의 하위개념은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실천가들의 정향으로 판단되어 “현장밀착형 서비스 체계”로 구성했다.

동역자 관계, 실천공유의 가치라는 하위범주는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주민참여복지”로 범주화했다.

결과는 “풀뿌리 복지”, “전략적 맞춤서비스 전달체계”로 구성했다. 결과에 해당되는 개념은 총 28개였다. 6개의 하위범주군에서 사회복지 당위성 획득, 아래로부터의 개혁, 사회복지저변의 확대라는 하위범주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복지로 판단되어 “풀뿌리 복지”로 범주화 했다. 서비스 선택과 집중, 상향평준화 체감복지라는 하위개념은 사회복지현실을 타개하려는 실천가들의 상황적 전략과 욕구지향적이고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려는 실천정향으로 판단되어 “전략적 맞춤서비스 전달체계”로 범주화했다.

이상의 내용을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재배열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재구성

4) 선택코딩

연구참여자들의 네트워크 활동경험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는 “사회복지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실천혁명”으로 상징했다. 개방코딩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 복지현실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기존의 관행적 접근으로는 근거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사회복지 실천 환경은 그 자체로서 미증유의 변화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사회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서비스 수급자들의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다양해졌다. 이런 변화는 과거에는 단순한 수급자 입장에 있던 클라이언트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조달에 있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들의 능력은 여전히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공급과 소비의 균형상태는 언제나 도달하기 힘든 난제이지만 사회복지의 경우 자원창출 능력의 부족으로 공급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거시적 환경변화 역시 실천현장에 동요를 가져왔다. 작금의 한국의 사회복지환경은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총괄적 기획하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사회복지지역분권화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스스로 자원을 조달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해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특히 작금의 우리 사회를 규율하다시피 하는 생산성에 대한 신화는 사회복지계에도 이어져 비용대비 효과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창출하는 결과는 정량화하기 어렵고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사회일반인들의 시각을 교정시키지 못했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회의론, 더 나아가 무용론을 야기시켰다고 사료된다.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에 편재해 있는 잠재적 복지 자원에 주목하게 된다. 지역사회에 산재한 인적, 물적 자원은 그간 꾸준히 작동하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자원이 조직화되지 못하여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주민조직에 다가갔다. 지역주민 조직 역시 사회복지사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역사회 이장단, 지역사회 운동가, 부녀회 등을 비롯한 주민조직들 역시 지역책임주의 의식이 성숙되었다. 지역책임주의는 지역이기주의와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주체는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민주화로 인한 시민의식의 성숙과 지방자치의 긍정적 효과가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C군의 경우 지역주민조직에서는 이장단이 참여하였는데 과거 권위정부시절 국정홍보와 집권당의 선거를 위해 동원되기도 했던 관변조직 성격이 강했던 이장단이 시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관변조직의 성격을 벗어나고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주체를 부상했다. 이들은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전부터 스스로 사례를 발견하고 해결해 왔으며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연대를 맺은 후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주력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인 연대를 맺고 복지-핫라인 구축, 현장밀착형 서비스체계, 전략적 맞춤서비스 제공 등의 새로운 실천접근을 모색했고 실천했다. 이러한 경험은 형식적이고 위계적인 민·관 네트워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 동시에 자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네트워크 실천경험을 “사회복지실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실천혁명”으로 명명했다.

5. 논의 및 제언

다수 행위자간의 사회적 교환행위 양식으로서 pierre와 peters(2000)는 지역공동체를 제시했다. 지역사회공동체는 지리적 분할과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을 취합하여 정리하면 지역주민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결성되기전 지역사회복지는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었다. 다시말해 특정인에게는 서비스가 집중되고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서비스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를 선별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전략을 수립하는데는 기존의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개개인의 구체적 상황과 특성, 잠재가능성, 주위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한데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사정할 수 없었다. 이 때 주민자원조직들은 사회복지조직상에 있는 정보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외적자원이 되었고 이를 통해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들과 주민자원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역주민조직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례발굴을 담당하며 사회복지사들의 눈과 발이 되었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물리적 장벽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 조직은 지역사회내의 생생한 문제를 전달하였고 사회복지사들은 이를 기초로 생생한 체감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호혜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 사회적 조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간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은 사회복지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이 자기지역에 설립되는 것에 대한 집단적 반대운동, 사회복지수급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 등 부정적 요인이 많았으나 복지가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고 이러한 의식의 성숙은 연구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한 복지 핫라인 구축이나 서비스 선택과 집중, 현장밀착형 서비스 체계가 구체화된 것이 전략적 맞춤 서비스라 할 수 있다. C군의 예를 들면, 화재로 가옥을 소실한 노인클라이언트가 대두되었는데, 이 노인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수급대상자도 아니고 화재 또한 실화(失火)였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공식적인 지원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주민조직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전소된 집의 잔해를 치우고 자재를 모금하고 건축기술자들 중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사회복지기관은 그 밖의 외부자원과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집을 재건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이자 주민참여네트워크의 핵심 중 하나는 풀뿌리 복지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풀뿌리는 억압받는 민초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저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참여복지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주민참여복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개선, 주민자원조직의 증대와 같은 저변의 확대, 자신의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 등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조직화되지 않으면 관념적인 구호나 파편적 효과에 머물 공산이 크다. 복지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열망과 역량 등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결과와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참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도·정책적 측면으로 지역사회복지기관 평가에 있어 지역주민참여 네트워크를 지표화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사례관리의 경우 복지기관 평가에 사례관리가 반영되기 시작한 후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듯이 평가하는 외부의 촉진, 조장 기제를 활용하여 주민참여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구조 설계에 관한 문제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 평면적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상·하위계적 관계보다는 평면적인 민주적 관계에

서 잘 작동하고 유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비대해지면 불가피하게 권력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집단 협의기구와 같은 의사 조정 장치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는 문화·정서적인 차원의 문제로 지역애착심의 전파이다. 이는 네트워크 결성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는 복지하는 시민으로서 거듭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이타적 동기나 가치관도 영향을 주지만 지역애착심이 큰 영향을 준다. 지역사회에 이러한 정서를 확산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산재한 잠재적 자원조직을 네트워크라는 기제를 통해 결집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선·유기형.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응집력과 지역사회 참여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27-53.
- 강우진. 2008. “자원봉사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관한 연구”. 『장안논총』 28(2): 135-151.
- 강창현. 200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경혜. 1996.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 서울 : 서울시정개발원.
- 김경희. 2005.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관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2(1): 41-64.
- 김교정. 2009. “사회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 부산 사회복지 개별기관의 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 학회』 9(6): 309-323.
- 김인숙·신은주·김혜선. 1997.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개발”.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
- 김재환. 2005. “자활 후견기관들의 기관 간 네트워크 활동중심성 비교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4): 1-36.
- 김준현. 2009.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연구 :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보』 43(4): 307-333.
- 박경숙. 2008.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조 : 공공복지행정기관, 민간노인복지기관, 공공보건기관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5(12), 245-269.
- 유태균·김자옥. 2001.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 복지관 간의 네트워크 특성 및 네트워크상에서의 중심적 역할정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7(2): 20-48.
- 이현주. 2000. “복지시설 및 기관들 간 네트워크 구축의 의의와 추진방안”. 『제2회 군산대 지역복지자원센터 지역복지 실무자 전문워크숍 자료집』.
- 이혜원. 2001. “결식아동 지원 조직간 서비스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190-224.
- 이춘광. 2008.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순돌. 1997. “사회사업에의 체계망 분석법 적용”. 『연세사회복지연구』 (4): 212-232
- 정순돌. 2001. “재가노인을 위한 사례관리 네트워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6): 404-426.
- 정윤길. 200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1):

- 155-172.
- 조애저·채현탁·이상용·배화옥. 1996.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체제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연구자료』,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현탁. 2007.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확충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13(2) : 151-170.
- 홍경준·백종만. 1999. “실업극복을 위한 민간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 전북지역의 민간비영리조직간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사회복지연구소』.
- Agranoff, R. 2006. “Inside collaborative networks : Ten lessons for public manage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Dec (special issue) : 56-65.
- Alter, C. and J. Hage. 1993. *Organization Working Together*.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
- Bardach, E. 1998. *Getting agencies to work together*.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 Berner, E. and B. Phillips. 2005. “Left to their own devices? Community self-help between alternative development and neo-liberal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0(1) : 17-29.
- Bogason, P. 2000. *Public policy and local governance*. Massachusetts : Edward Elgar.
- Connelly, S. 2006. “Looking inside public involvement : How is it made so ineffective and can we change thi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1(1) : 16-31.
-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sisco : Jossey-Bass.
- Elster, J. 1989. *The cement of society : A study of social order*.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laeser, E., L. D. Laison., J. S. Scheinkman, and C. C. Soutter. 1999. “What is social capital? The Determinants of Trust and Trustworthiness”. Working paper Massachusetts : *National Bareaue of Economic Research*.
- Green, G. P. and A. Haines. 2002. *Asset Build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London : Sage publication.
- Khator, P. and N. A. Branson. 2001. *Creating Networks for interorganizational setting*, in Getting Results through collaboration, M. P. Mandel(ed). West Port: Quorum Books.
- Mattessich, P. and M. C. Monsey. 2001. *Collaboration : What makes at work*. Saint Paul : Amheret H. Wilder Foundation.
- Nadel, S. F. 1957. *The theory of social structure*. London: Cohen and West.
- Nelson, L. S. 2001. *Environmental Networks, in getting Results through collaboration*, M.P. mandel (ed). West port: Quorum Books
- Olson, M.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 The Evol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Tool, L. J. 1997. “Treating Networks seriously : practical and Research-Based Agendas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1) : 45-52.
- Provan, K. G. and H. B. Milward. 2001. “Do Networks Really work? A Frame work for evaluating public-sector organizational Network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4) : 414-423.
- Rasmusen, E. 1994. *Games and information, and introduction to game theory*. Oxford : Blackwell.

- Rhodes, R. A. W. 1999. *Understanding Governance : policy Network, Governance, Reflexibil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 Open University Press.
- Strauss, A. and J.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Walker, M., S. Wasserman, and B. Wellman. 1994. "Statistical Model. for social support Networks". S. Wasserman and Galaskiewicz (eds). *Advances in Network Analysis*.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

A Qualitative Research of the Residents Participated Welfare Network - Grounded theory Approach -

Kim, Young-Sook
(SahmYook University)

Lim, Hyo-Yeon
(SeJong Cyber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tents and interaction of residents voluntary network and propose the strategies to promote residents voluntary network. The grounded theory was utilized to attain our object.

Total of seven social worker and 17 resi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docum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trauss and Corbin's method. Results are the followings. In open coding 13 categories, 32 subcategories and 133 concepts were constructed.

In axial coding causal conditions were qualitative ascent of needs, emergence of the right welfare consumer. Phenomenon was agitation of praxis ground and grope of exist. Contextual conditions were crisis resources, skepticism of welfare. Intervention conditions were maturation of welfare cognition and prolifer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responsibility. Strategy were resocialization of voluntary organization and construction of field related service delivery system. Consequence were grass routing welfare strategic fitting service system.

In selective coding we constructed the core category: The praxis revolution from bottom for break social welfare environment.

Key words: community welfare, resident participation, network, grounded theory

[논문 접수일 : 10. 06. 16, 심사일 : 10. 07. 09, 게재 확정일 : 10. 09. 16]